

# 인간내면 탐구하는 상상력의 정직성

##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사랑」 전4부작 완간한 최수철씨

“이것으로써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줄기 차게 탐색해왔던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탐색을 일단락짓고,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소 색다른 소설의 세계를 열어가볼 생각입니다.”

우리시대의 가장 낯선 작가, 가장 예외적인 작가라는 특색있는 수사처럼 지난 10여년간의 작가생활을 통해 독특한 소설의 세계를 구축해왔던 작가 최수철(34)씨가 최근 기왕의 소설적 탐구를 더욱 치열하게 해들어간 4권짜리 연작소설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사랑」(열음사)을 완간했다.

작가 자신의 선언처럼, 작가 생활 1기를 마감하고 2기라는 새로운 단계로의 이항기를 마주한 그는, 마지막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을 새 작품엔 손도 못댄 채 꿈쩍없이 앉아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놓고 잠시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라고 근황을 밝힌다.

하나의 세계에 종지부를 찍듯 이번에 발표된 4부작은 이전의 「공중누각」 「화두, 기록, 화석」 「고래뱃속에서」 「말(馬)처럼 뛰는 말(言)」 등의 작품집에서 주로 보여주었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극미한 탐구, 인간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세계에 대한 정밀한 묘사 등의 특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색, 매 주제마다 한권씩의 분량으로 써내는 집요함과 끈기로 우선 독자를 압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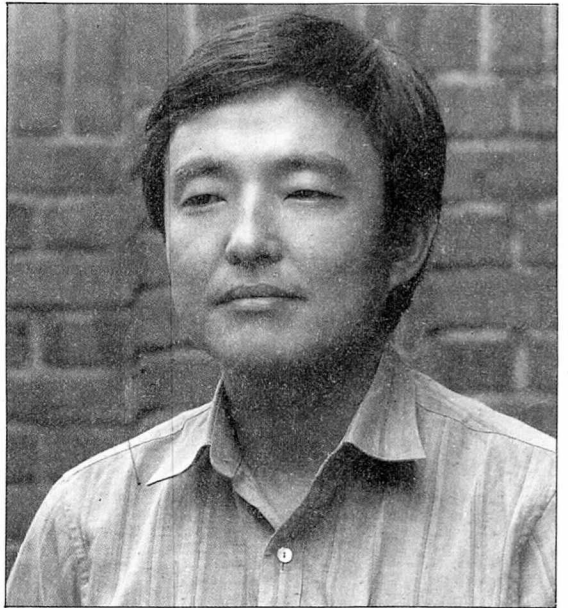
1권 「즐거움 지옥의 나뉨」은 열쇠, 스트레오, 안경, 버릇, 수첩, 추억, 자존심 등 어느 무

정부주의자가 하루 혹은 짧은 나날들 속에서 겪게 되는 일상의 의미를 추적한 것이라면, 2권 「무정부주의자의 사랑」은 억압되어 있는 성의식을 자유롭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내용. 3권 「녹은 소금, 썩은 생각」은 인간의 자의식 속에 간혀 있는 사회의식과 정치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4권 「알몸과 육성」은 소설가 자신이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허위의식을 점검, 글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글쓰기’로 떨쳐내고 있다.

“처음부터 4부작을 작정하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지닌 주인공의 눈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쫓아들어가다보니 대체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긴 이 4가지에 정착된 것입니다. 각 작품의 이야기 방식이나 작품들 간의 관계내지는 연결 등이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나 이 4부작을 읽는 동안 만큼은 평소하던 책 읽기의 방법을 과감히 벗어나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적 상황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무정부주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를 통하여 독자들을 낯선 세계로 이끄는 이 4부작에 대한 완간의 변은 그러나 다소 의외다. “내 의식의 미로를 찾아다니며 가능한 모두 점검해보려 했으나 일상에 대한 나의 시각은 여전히 피상적인 관찰상태에 머물러 있고 허위의식을 피내려고 하는 자리에 다시 생겨나는 또 다른 허위의식 앞에선 전혀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작가의 자학적이기까지 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간의 내밀한 욕구와 허위의식을 까발려 진실의 골격만을 추려낸 작가는 드물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작가의 체험 속에서 육화돼온 정직한 상상력만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고, 그런 까닭에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들, 즉 내 주변의 것들과 내부의 것들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정직하게 글로써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철씨

작가가 그토록 치열하게 자기내부를 해부해 들어가고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글쓰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그는 정직한 상상력이 가진 소설의 힘과 진실로 설명한다.

“소설을 흔히들 허구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작가의 상상력이 많이 개입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작가자신도 신뢰 못할 사실을 떠벌려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작가의 체험 속에서 육화되어 나온 정직한 상상력만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고, 그런 까닭에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들, 즉 내 주변의 것들과 내부의 것들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정직하게 글로써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의 삶이

보다 굴곡지고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연루되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체험에 충실해서 글을 썼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지난 8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맹점」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그는 올해로 작가생활 11년째를 맞는다. 스스로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중이라고 말하고 있듯, “우리현실에 대한 저변적인 돌아봄과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인식까지도 도의시 않고서 글쓰기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가겠다”는 작가의 말을 담보삼아 보자면 잠시동안의 머뭇거름을 끝내고 작가가 나아가 방향이 어느 쪽일는지 짐작해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 정혜옥 기자

#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출판물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국제저작권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은 책·많이 읽히는 책을 찾고 계십니까?  
바다저작권회사를 만나보십시오!

바다저작권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분야에서는 특히 전문도서분야에도 노하우를 축적, 아트 북, 건축도서, 의학서적 등, 번역권과 리프린트권에 대한 계약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책의 기획에서부터 번역, 편집, 북디자인, 출판광고 등 책 만들기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39-25호  
☎ 325-0632, 0633  
FAX : 325-0634